

에서

택 한 백 성

디 도 2:14 기 원 형 목사

20세기에 있어서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순교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본 헤퍼 목사 두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선행 일을 하고 원수를 사랑한것을 본 받아 그들은 미국과 독일에서 선행 일을하며 원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불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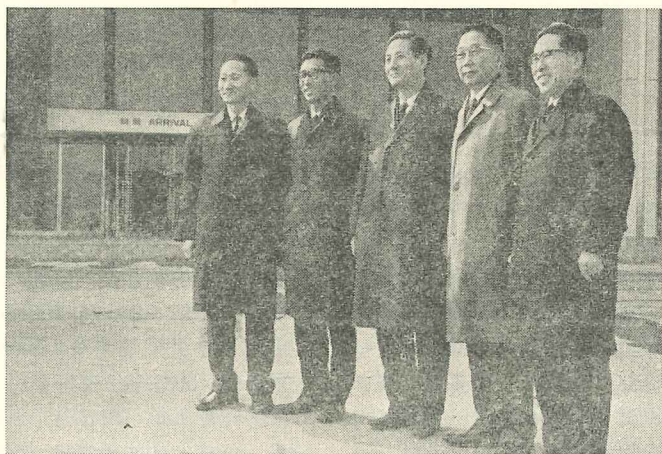
이 두분의 인생의 결은 영웅의 생애라기 보다 평범하게 신도답게 선하게 살아간 분이라고 하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구속함을 받은 선행 일을 열심히 하는 천백성이 되게 하려함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살아간 분들입니다.

(1)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애끼지 아니하고 제물로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복을 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후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내가 내 백성에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지리라" 그들을 인도하여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장자로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멸망의 날 그들은 안전 하리라"는 구약과 구원의 약속에 배후에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즉 선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땅위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2) 그 중에도 우리 한국 사람 신자들은 특히 선행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예장 신도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장로님이 이번에 가서 두번 사기를 당했고 구두땀기소녀가 처음 20원으로 약속하고 땀은 후에는 50원을 내라고 생떼를 쓰고 겨우 잡은 택시 운전수가 불친

절한것은 말할것도 없고 교통순경은 운전수에게 금전을 강요하는것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수출품 김 속에는 불량품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럽고 한 없이 슬픈 일입니다. 간난해서 그렇지 변명도 할 수 있겠지요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하는 사람 없다는데) 변명은 변명에 그칩니다. 어떤 집사님 말을 들으니 일본안에 소년형무소가 수 십곳 있는데 그 수감된 소년에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가 우리 교포 소년입니다.

단기 선교사를 맞이하여



.....10개년 선교계획의 하나인 개척전도를 착수하기 위해 모국에서 파송한 다섯 목사

1월 23일 오전 11시 15분 오오사가 공항에 모국 교회가 재일동포의 구령을 위하여 단기 선교사로 보낸 다섯 목사가 도착하였다. 예장에서 채종목 강사 우 양목사 기장에서 엄기현 이준목 감리에서 최기석 여러 목사들을 파견한 것이다. 한국기독교계의 소장목사로 이름난 다섯목사를 맞이한 우리는 일본땅에 복음선교의 새빛을 보게된것 같다. 그날밤 오오사가 크리스찬 센터에서 총회장과 위원장 총간사 위원들 각 기관책임자들 20명이 환영만찬회와 앞으로 개척전도 실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다섯목사의 임지는 채종목목사를 동경 立川로 이준목목사를 静岡로 최기석목사를 岡山로 엄기현목사를 佐世保로 강상우목사를 桑名로 정

이것을 인구 비례로 하면 우리교포 소년이 일본인소년에 40배 되는 불량 범죄 소년이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너무나도 슬픈 사실입니다. 한국안에있는 불량소년이나 일본 형무소안에있는 불량소년들은 불량하다기 보다 상처받은 부상병 어리고 골짜기에서 쫓겨진 불탄당 맞아 죽어가는 내동포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리고 골짜기를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사람 같이 그곳을 피하여 만경로 가버리겠습니까 그곳으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쓰다듬고 치료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에베소2:10에 우리는 선행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행일을 시작 하셨습니다.

하여 각각 그 지방 전도부가 책임지고 협력하게하였다. 이번 개척전도를 시작한 그곳에는 반드시 교회를 형성하도록 하고 끝까지 본국 각 교파가 이번에 파견한 선교사의 임

YMCA직원과

관동지방 교역자 간담회

YMCA직원과 관동지방 교역자와의간담회가1월 13일 오후 3시 YMCA의 요청에 따라 YMCA측에서 육문석총무와 황재열 협동총무 그리고교역자측에서 오윤채목사 조기준목사 이기준목사 맹희복목사 황재정목사 황의생목사가 참석하여 YMCA의 강화와 교회와의 협조에 대해서 약 2시간 유익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를 자기 선교지로 책임지고 계속 원조하기로 되었다. 재일한국인교회를 모국교회와 동시활동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은 과거 60년 역사의 뒤를 지니고 나가는 오늘의 교회의 근본자세로 돌아가게 된것이다. 60만 구령의책임으로 재일우리교회가 새시대를 맞이 하자는 것이다. 3개월 지나 단기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뒤는 우리가 계속하여 선교사업을 이어나가면

佐世保 개척

전도 집회

선교60주년 기념사업으로 단기 선교사 5명 제일진이 도입하여 각각 개척전도를 시작하고 있던바 일본남쪽 佐世保에서도 단기 선교사 엄기현목사님을 모시고 지난 2월4일과 5일 佐世保거류민단 사무실에서 특별전도집회를 가졌는데 4일 밤에는 67명의 참석자가있었고 5일밤에는 40여명의 참석자가 있어 엄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4일밤에는 福岡총영사관의 협력과 홍순우장학사와 장제정소장의 협력으로 영화의 밤도 가졌다.

佐世保전도소는 박창환전도사와 大阪 平野교회 김수현전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척전도의 터전을싸아 오든중 금번 엄기현목사님의 도입활동으로 전도운동이 활발하게되어 매주일마다 집회를 가지기 위하여 佐世保시 중앙 교통에 편리한 곳에 집회장소를 빌렸다고 한다. 佐世保

카나다 선교부

선교방침확정

카나다 선교부는 본 총회내에서의 선교방침 재검토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원안이 1월 22일에 개최된 선교사 인사위원회와 임직원회에서 승인되어 앞으로 실행하게 될것이다. 그 방침에 의하면 본총회가 완전한 자주성을 가지기 위해서 앞으로 10년간에 현재 재일선교부가 하는 기능과 관리하는 재정을 총회에 인계하며 선교사는완전히 총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방침으로서 가장 건설적인 것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서 뒤에오는 단기 선교사를 또 맞이하여 적극활동 하므로 교회형성의길로 매진 하교자 하는것이다.

다섯목사는 성령의 보내심을받고 불탄용기와 구체적인 방침을 품에안고 24일 아침 오오사카에서 각각 임지를 향하여 떠나갔다. 하나님은 이 착한 사업에 축복을 내리사 우리의 사상밖에 크고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문책 전영복)

전도를 위하여는 서남지방 부인 연합회와 지방회 전도부 그리고 재일 대한기독교 부인 전도회 연합회에서 경재적 후원을 하고있으며 앞으로 개척전도에 큰 희망이 보이게 되었다.

금번 전도집회에는 서남지방 각 목사님들과 신도들이 협력할 뿐더러 佐世保거류민단 단장 신명련씨를 비롯하여 삼기관장들도 적극 협력하였다.

황재정 목사

뉴우지란드 유학

橫濱교회 시루중인 황재정목사님은 일본기독교 협의회를 통해서 동남아세아 기독교 협의회 장학금을 받게되어 뉴우지란드 오오크란트시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서 1년간 연구하기위해서 2개월후에 출발한다.

황의생 목사도

유학 준비중

황의생목사는 금년여름에 카나다 유학이 결정되어있는데 카나다 선교부는 앞으로 유학생이출발전에 유학에 유익한 연구와 준비를 미리 하기를 요구하고 약간의 장학금 지불까지결정 황목사는 그 결정에따라 2월부터 도립대학 사회학과 鈴木二郎교수 연구실에서 「소수민족문제」를연구하게 되었다.

시취국 공고

시 일 4월14일오전9시
장 소 京都教会
신청마감 3월 31일
신청장소 京都總會사무실
신청서류 시취과목등은 시취국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취국장 전 영 복

III 女性シリーズ (2) III

娘

女性の名称の中で娘と言う言葉ほど美しく香り高い言葉はない。ミス、ドーターを一つにしたニュアンスを持ち、女の清らかさ若々しさ、ふくよかさを一言で言いあらわした言葉である。娘とは未婚の女性であって少女から成長した、そしてまだ成熟していない、女らしさのすべてを形づけられて行く時期の女性である、ようやく、これから、やがて、の女である。女として娘時代に娘らしさの欠けた女性は、一生の、不幸を担うことになる素因を植えつけないことである。日本に住む韓国人の娘は何よりもまず娘らしくなることである。美醜、賢愚と言うことを問題の外にして娘らしさと言うことに焦点を置いてそのありのままの姿を浮彫り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天真爛漫と言うことを幼児にあてはめるが、娘はその純真さを持ち続けているものである。「ひねくれ」は娘らしさを失ったものであって素直さが娘らしさそのものである。優美エレガントを女性の香りとするが、下劣さは娘らしさの敵である。「その性(さが)優美にしていとも香り高き女性」と言う表現はそのまま娘らしさの表現である。明朗、ほがらかと言うことはそうした性格の人間を言うのではなく娘一般の形容詞である、暗い女陰のある女と言うことは娘らしくないと言うことの裏返しである。ほのぼのとした温かさ、激情でなく、熱狂でなく熱するのでもない、冷えもしない、ほのかな温さが娘の体温である。笑いのやまないので娘時代である。人としての喜びに心満され生きていることの幸福を、心の泉から酌み取っているのが娘である。希望のない生ける墓と言うことを人間の破滅の姿とするが、蕾のやがて開こうとする、つぼりかな、はち切れそうな希望にふくらんでいるのが娘である。これからの長い人生へ陰のない、疑いのない、たくらみのない、ありのままの生へ、大きな摂理にゆだね切った、希望にふくらんでいるのが娘である。澄み切った清水(しみず)のように、小さな「にぎり」も気になって、ひたすら、人間の清らかさを自分の内に、又人の世に、祈り求めるのが娘である、和(なご)

やかな生に本当の安住を求めいさかい、みだれ、たてつく人の姿を見て大きな悲しみを持つのが娘である。繊細な心の琴をかなでているのが娘である。幸福な人を見てわが身の様に喜び、不幸な人を見ては共に泣き、自分の食を細めても、貧しい繕を満たさせようとするのが娘である。ようやく、世の中の矛盾と人の世の苦しさに目の開かれて行くのが娘である。大海に船出(ふなで)する船人のように、どんな荒波も乗り越えようと心こまやかに、備えをしようとするのが娘である。波にも風にも打ちひしがれない強い固い心の要(かなめ)を打ち込むのが娘である。信仰とは、むづかしい教理でもなく、教会の集りにだけ養われるものでもない。長い人生の荒波に勝ち抜いて行く強いシッカリした人格をつくるものである娘時代に大切なことはその時代に生きる文化を身につけることである、教養のない女性は文化の世に生きて行くことはできないとまで言われている、男性と伍して生きて行く女性として最も必要なものは教養である、教会の青年活動

の中で女子青年の活動として娘活動、教養講座と言うようなものを開いて娘として女性の教養を身につけ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娘時代に婦徳を身に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婦徳とは礼節である、韓国女性として日本社会で生きて行くためにもシッカリとした韓国女性の礼儀作法を学び、長い歴史の中で織りなされた優雅な深い文化に養われた韓国民族の礼節を今日の女性として、その精神、その作法を学ばねばならない。娘時代に衣食住の伝統と進歩向上を学ぶことが大切である。人間生活のアルファでありオメガは衣食住である、衣食住に人生の楽しみ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味気ない人生と言う言葉の裏返しは衣食住に何の風情もなく楽しみも知らない生活のことである。文化と言うも矢張り衣食住から涵み出たものが文化であると言えよう、娘時代はそう長い時期でない、在日韓国娘を教会が真摯に考えなければならぬと思う。

(京都教会 田永福牧師)

一 教会教育シリーズ (1) 一

キリスト教教育の重要性

子供は、いかなる家庭や社会においても、宗教的ならわしに、あずかるように育てられる。彼らは成人になった時次の世代に教えるべき信仰や習慣そして義務等を学ぶのである。そのような意味で、私たちにとって宗教教育は、信仰、道徳そして民族教育まで含むのである。キリスト教ははじめから子供教育と成人教育に従事してきた。原始教会では、成人教育を重視したので、子供教育の手引きはなかったようである。それで子供教育の責任は、殆んど両親におわされていた。後にキリスト者を教育する学校ができたので教会は学校にカテキズムの教育を提供した。しかし家庭は今でも信仰のうちに子弟を育てる第1の義務をもっている。今日私たちが知っているような日曜日の教会学校は

教育史的に見るならば、大変おくれて現われた。最近教育の種々な意図が、時代的神学に影響されつつ、聖書及び教会の解釈、教育の目標、周囲の文化の見方を変革したのである。私たちは、今中世教会や宗教改革時代のことについて述べるいとまがない。ただ20世紀後半に生きる者の立場から神学並びに聖書の意義とその目標の中で、私たちの教育的業を見る必要がある。世俗文化の中で生活を営む私たちは、その文化の中に、キリスト教の細胞核の遺骸を見ないのである。深い信仰体験をもつ信徒は高い水準に達したかも知れないが、教会は長い間自己反省することを知らなかった。それに対して、世俗的教育界はキリスト教教育に大きな貢献をなし遂げた。一般的教育哲学がアメリカではい

ささか混乱を起したが、多くのキリスト教教育者にとっては、実に多くのことが役立ったのである。例えば、新しい教授技術、グループ生活の理解、そして発達心理学の成果等である。

(1) 教会教育シリーズの目的

本シリーズの目的は、キリスト教教育の基本的理解、技術、管理等に関心をもつ信徒を指導するためである。献身的な信徒は、教会の牧師、職業的宗教教育者と同様に、特に教会学校教師たちに、この知識が要求されるのである。男女の青年が、教会学校の教師になることや、やがて父母になるのを意図しないにしても、このような知識は必要である。なぜなら、彼がひとりのクリスチャンとして、信仰の交わりに参与しなければ、やがて自分の信仰をも失ってしまうのを経験するからである。キリスト者両親は、その子弟に信仰教育を授ける責任をもっている。信仰教育の最も大きな感化力は、その人の

生活態度であるといわれる。最近最も強い関心事は信徒の職務(Vocation)である。世にいる信徒は、福音の証しのために、彼に与えられる機会を用いながら、その生活を通して、福音の証し者として召されている。教会の働きは、世に仕えることである。かかる意味で、私たちは、キリスト教教育に関するより有効な理解を必要とする。またすべての信徒は周囲の地域社会のあらゆる教育の中で、教会の使命を正しく理解する必要がある。しかし無知であってはならない。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伝達するために、はっきりした見通し、活動のプログラム、練達された技術の知識が要求される。これを行うのは、現実社会の中で、複雑困難きわまる仕事であるが教会がこれを正しく理解し、信徒を教育して彼らを通して福音を社会に伝えるに有効な機関であるがゆえに重要である。(つづく)

(西宮教会 尹宗銀牧師)

青年局会開催

1月22日 京都教会で行われた青年局会では、1月号福音新聞に記せられたような1月2日～4日に河内長野で行われた青年研修会の報告があったその後に決議された重要な事項は次の通りである。

1. 討議事項、決定事項

1) 青年問題研究会再組織と研究課題検討

ア、組織 委員長、黄義生、書記 金得三、会計、張相宰 委員、金元治 崔忠植 申英子

イ、研究委員

黄義生 金元治 李仁夏 孟哲輝 崔昌華 金安弘 張相宰 申英子 李泰雨 崔忠植 金鳳天 崔秀賢 吳寿恵

ロ、研究課題 (1969年11月中開催予定)

主題「教会と青年」教会青年指導者の指導性、孟哲輝 金元治(研究者決定) 現代青年と教会観 李仁夏 崔秀賢(研究者決定) 教会青年と朝総連 崔昌華 崔忠植(研究者決定)

教会と高校生

金安弘 李泰雨 (研究者決定)

2) 高等部夏期学校件

日時 8月12日～15日 於 東山荘

組織 校長 裴琪煥、教務 金安弘、教務補 金幸子 金甲粉、音楽担当 康成安 主題「聖經과 우리」No1 予算12万円

3) 母国教会青年과의交流件

責任者 孟哲輝牧師 費用負担(到着後2週間滞在費負担、予算10万円) 스케줄 8月10日関西、8月17日関東、8月18日～22日中部 8月24日西南、人員 代表3名(牧師1、青年2)

青年局会報告

4) 青年夏期全国修養会後援件 8月12日～15日 於 東山荘

主牧 金得三牧師 講師 李仁夏、孟哲輝、金榮植、崔忠植、李泰雨、申英子、



聖 書

信 仰 の 勝 利

第一ヨハネ 5:1~12

1、この世は実に悩が多い。聖書の中に出て来る悩みも数え切れない程多い。子供をなくした母親（ルカ7:11~12）悪霊にとりつかれた息子をもった父親（マルコ9:18）鼠を売ったお金の半分を神に捧げて全額をささげましたとウソを神の前で言う夫婦（行5:1~11）イエスを売ったユダ（マタイ26:14~15）親を殺そうとした息子（サムエル18:9）姦淫した女（ヨハネ8:3）等人生の悩みのつぼのようなものである。これが2千年昔の物語でなく、20世紀の文化のすすんだ現在にも毎日私達を悩ましている問題である。このような世の中で生きていくことは並たいていな事ではない。だからみんなこのような問題によって苦しみにひしがれて困ってしまう。キリストにこのような世の中での勝利を教えている。（ヨハネ16:33）

2、パウロがキリストを宣べ伝えるというので彼を殺すまでは寝食もとらないといっている群れもいた。（行23:21）このような迫害に対してもパウロは、信仰の勝利を証している。（行28:14、28~30）この信仰の勝利はイエスを神の子と信ずる信仰からである。主イエスを信ずる者はその人の内に神がいます。（第1ヨハネ4:15）このことは神の力を内にもっているから、この世の苦しみ悩みや迫害不品行をとりのぞくだけでなく、それに打ち勝つ力をも与えられている。（第1ヨハネ3:9）神様はこのような人達を守って罪を犯さないようにするし、又悪い者が信者に手を触れさせないからである。（第1ヨハネ5:18）

3、使徒達も神様を信じ弟子として主と共に伝道の道に励んでいたけれども、困難な時には主を1人おきざりにして逃げる時もあった。（ヨハネ16:32、ルカ22:60）しかし彼らが聖霊を受けた時には別人のように聖霊の力に満ちあふれて神の言を堂々と説教していたのである（行2:1~24）使徒たちが主イエスを神の子と信ずることによって、この世の力に勝ったように、世俗の力が強く信仰の力が押され

がちな昨今、今一層力を出して信仰による勝利を得たいものである。（行4:23~31）ブルドーザが、木も石も水も岩も海も強力な力によってすべてをのみつくして平らにしてしまうように私達も信仰というブルドーザによって、

この世の悩み苦しみは勿論のこと、すべての誘惑、享樂的な世俗の力を押しつぶすだけの力をもって勝利の道をまっしぐらに進もうではないか。（ロマ8:31~39）

（西成教会金元治牧師）

ボンヘッファーの

神学的思考

— 5 —

このように従来の超越神は、人間が弱さの中にはまり込まないならば、信ずることができない神である故に、その弱点を利用するほかになく、この神を強制しようとすれば人間を絶望と失敗と弱きへと追い込む他ない。そこでボンヘッファーは自分の時代までの教職者たちが既成諸宗教は神とかキリストとかいい乍ら、實際は、この世に対する責任を忘却し、しかも人間を弱くしてしまうことによって自己保存（ゼルブストゥエルハルテング）の為のみ戦って来たのだと批判した。このような宗教性に対する批判より出発して、ボンヘッファーは実存哲学、心理療法者、基督教弁証論、神学者たち例えばブルンナー、バルト、ブルトマン等に批判をしている。それならば成熟したこの世を見ており、何を一体提示しようと考えているのであるか。現代のような理性と技術時代に於ては神を問題の解決者と見ない故に完全に無宗教の時代となり、人間も宗教的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人間性の全領域が理性法則に従って自律的に動いている故に、假説的な神は不必要だといふのである。萬一必要だとするならば、知的誠意を犠牲にさせることになる。それ故に彼は、このような時代に生きる人間が神を信ず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ならば啓示というものが必要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又それを強調したということは当然なること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啓示は具体的な啓示

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故に神の言（或いはキリスト）を概念によってではなく、受肉し給い、今も、教会として実存しているキリスト（クリストゥス・アルス・ゲマインデ・エグジステールントゥ）から見なければならぬ。受肉し給い、十字架にかけられ、復活し給うたこのキリストに参与し信仰的に服従し、他人に向かう此処の存在（フィア・アンデレ・ダ・ザイン）として、キリストの苦難を共に担うこと、これが即ち現代の信仰であり、悔い改めであり、クリスチャンの姿即ちキリストと同形に形成された姿なのである。これこそが新しい人間、新しい人類であるという。キリストと同形の者として生きるこのようなクリスチャンこそ真実の虚無主義者（ヴァイルクリヒ・ニヒリスト）だとしたボンヘッファーは、神と世界の二現実という二元論を避けようと努力したのである。そして、この地上に於て新しい生を生きることが復活であるとし、この現実の世（つまりキリストの中での唯一の現実）を中心とする考えを貫徹せんとしたのである。従って、神の超越性というものは認識論的な或いは彼岸的なものではなくて、この地上の超越であるとし、この地上性（ディースザイティツヒカイトゥ）或いは自律であるという意味での無神性を強調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理解からして、彼は無宗教的基督教（レリギオンスローゼス・

クリステントゥーム）或いは一步前進して聖書にある諸概念のこの地上的解釈（ディ・ヴェルトウリッヒ・インテルプレタチオン）という非宗教的解釈を提示したのである。それでは、かかる解釈というものがあるのか、それは我々をしてキリストのもとで生きられるように助け神が恩恵として賜ったものの中で神

を発見しうるようにしてくれるそのような解釈をいうのである。その最も具体的な例としてボンヘッファーは委任統治（マングートゥ）をもって来る。彼はこの委任、即ち結婚、労働、国家、教会等の制度のもとで仕え乍ら生きるべきことを主張している。

— 続く —

（岐阜教会 金承俊講師）

中高生の聖書を学ぶ会

— 名古屋教会 —

名古屋教会といえば、あの近代的な建物で抽象される在日大韓基督教会の中の大教会の一つである。大教会に見られる特徴として、信者の大多数が平均年齢五十才という事実があるが、名古屋教会もその例外ではない。そのような中で高校生を中心とした聖書研究会というものが発足した。これは昨年の11月から始まったものである。使われている言語のためか普通日曜の礼拝には若い人は出席しない。この点に目をつけて、一部の高校生が中心となってその時間を聖書研究をはじめようとの声を持ち上った。丁度申英子伝道師も赴任して来たところで、堂会にこれを願い出ると即座に許可された。

朝の礼拝は中学生、高校生合同で九時三十分よりはじまる。三十分間礼拝で後の三十分は分級である。今迄、教会学校の幼稚科とともに礼拝して来た中学生には少しむずかしい点もあるが、高校生とともに礼拝できて急に大人の列に加ったような気分である。高校生は三分の一が大人の礼拝に参加して、あとの三分の二は礼拝のおごそかな雰囲気ふれていなかったのがこれで礼拝とはどういうものであるかわか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けれどもこれだけでは聖書を学ぶことが不十分であるという反省から、聖書研究が持たれるようになった。やはり九月より中部地方に赴任して来られたアンダーソン（安道宣）牧師宅も時々このために開放されて、聖研のあとのお笑え親睦会に笑いの花が咲く目下は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と取り組んでいる。興味深いことは、高校生からはじまったこの聖研が中学生にまでおよび合同で持つこと数回を重ねた。その上驚くべきことに、前回では小学6年生のG君とY君の飛び入りがあっ

た。夕方教会にピンポンを楽しむに来た彼らも、中学生、高校生の熱心な聖研に興味を持ち参加となった。宣教の愚かさ（コリント1:21）は彼らにあまりにもむずかしいようであるが、信仰とは何であるか彼らなりにとらえていて時々発言する彼らの言葉はすどく、中・高生が、たじたじとなることしばしばであった。この聖研の特色はこれだけで終るものではない。在日大韓基督教会が、荷っている伝統文化の継承に参与しようと、聖研後の三十分は改訂版の韓国語の聖書で、韓国語の勉強をする。小学校6年生から高校生まで総勢十人から十五人が声をあわせて韓国語を学ぶ姿はほほえましくも尊い経験である。これらの若い層がまず福音に根ざしたキリスト者の歩みを正しくファイトを持って続くよう祈るとともに声援を送らずにはいられない。

（おわり）

文書主日 献金 教会

— 1968年度分 —

平野教会	¥ 7,000
堺 "	" 10,078
大阪 "	" 18,030
京都 "	" 15,775
武庫川 "	" 5,500
西宮 "	" 7,000
枚岡 "	" 1,030
岐阜 "	" 3,030
広島 "	" 5,000
西成 "	" 15,030
川西 "	" 3,700
北部 "	" 6,150
川崎 "	" 5,000

× × ×